

## 여덟째 주(Week 8)

이사야 58:1-9a “정의(Justice)는 한 끼니를 거르는 것 이상의 것 (Skipping a meal)입니다.”

### 여는 기도:

좋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으로 가득찬 깨어진 세상 한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하는 것은, 저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필요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에이전트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평소 글을 다루는 많은 편집장(editors)들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단연 “scare quotes”의 과용일 것입니다. Scare quotes 란 단어나 문장의 시작을 담는 인용부호를 의미하는 데, 그 일반적인 용도인 어떤 사람이나 자료로부터 나온 실제의 단어나 표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과는 달리,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관적이고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즉, 글쓴이가 scare quotes 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는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는 역설적이고 싶어”라는 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8 장을 살펴보다보면, 많은 곳에서 scare quotes 가 적절한 위치에 덧붙여져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scare quotes 는 “금식”(fasting)이라는 표현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58 장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 내 백성아, 너희는 금식을 잘 실행 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나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재정의 하실 때,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문자적인 의미의 단순히 먹지 않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살아가는 삶이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수많은 아이러니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종교적 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면서도, 자신들이 일하는 자리에 가선 고용자들을 못 살게 구는, 마치 금식을 사람들일 괴롭힐 수 있도록 받은 허가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그림들을 마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더 터무니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금식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뷔페식당으로 달려가고, 그 안에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남은 무화과를 차지 하기 위해 주먹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헛된 것이자, 거짓된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의 경건한 행위들을 보시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못 본체 망각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오늘 금식합니다” 와 같은 스티커를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에 부착하고 왜 하나님께서 부와 행복을 향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지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문자적 의미의 금식을 그치고,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억압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노동자들의 정의를 보호하며,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굶고 있는 자들을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라”는 말씀과 동시에 “신명기와 민수기를 다시 읽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너의 종교적이고 경건한 모습들이 나에게 역겹게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와(liturgical) 경건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삶의 다른 중요한 행위들과는 완전히 격리되어져 버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종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주일에만 우리를 만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로 정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종교적 의식들과 행위들이 예배와 기독교들의 모임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운데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의한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도 보기에 그럴싸한 예배는 충분히 들여질 수 있으며, 그런 현실은 아무런 도전을 직면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과 회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자신을 제대로 비취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막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좌우진영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니며, 케이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아나운서나 해설위원의 말들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사야 58 장이 마지막에 약속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삶을 살기 소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겸손을 심고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로 내어др러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혹은 채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말하며, 노래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의 다른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뿌리내리는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급진적인 헌신 가운데로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기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순전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아계시고, 성육하시므로,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 토론해 볼 주제:

- 당신의 삶 가운데 위선 (hypocrisy)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당신에게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무엇으로부터 당신은 금식을 하십니까?
- 금식의 개념이 이해가 가십니까? 금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지는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들이 가운데, 예배 밖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채플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속사 생활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이 본문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들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무엇을 이사야가 이야기 하였습니까?)
- 야고보서 1:27 적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과 이사야 58:6-14 이 비슷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그 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의 이름 가운데 수 많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분께 불순종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7:21-23). 하나님을 날마다 구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싸움(fighting) 과 억압(oppression)이 하나님의 날마다 구하는 삶으로부터 당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합니까?
- 우리 모두는 자주 아무 생각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경제적인 경향들과 관행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언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까? 이런 경향들을 따라가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고된 일에 비하면 아주 쉽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칼빈에도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의 기숙사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